

전일동향

외국인 국내주식 순매수에...1,333.10원에 마감

19일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1,331.40원(15:30 기준) 대비 4.60원 상승한 1,336.00원(06:00 기준)에 개장했다.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와 외국인 국내주식 순매수에 힘입어 연저점을 경신한 뒤, 1,333.10원에 종가(06:00 기준)를 기록했다. 일간 장중 변동 폭은 10.00원이었다.

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839.94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336.00	1337.60	1327.60	1333.10	1332.10
	엔화	842.93	847.33	839.44	839.94	-
	유로화	1496.81	1501.98	1484.75	1492.82	-
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 : 달러는 익일 06:00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0.49	-3.06	-6.98	-15.79
	결제환율(수입)	-0.23	-1.87	-4.96	-12.12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 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금일 전망

달러 강세 여건에도 불구하고...1,330원대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1.1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(1,330.30, 15:30 기준) 대비 2.25원 상승한 1,331.40원에서 최고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달러 강세 등 대외 여건에도 위험선호 심리 회복에 힘입어 하락 전망한다. 간밤 뉴욕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1%대 반등하며 지난주 급락했던 기술주에 저가매수세가 유입되었다. 이에 금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줄어들 공산이 커, 금일 환율은 하방으로 무게가 쏠릴 전망이다. 아울러 반도체 기업을 필두로 한 달러 매도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는 가운데, 외국인의 달러 선물 매도세도 이를 거두고 있다는 점 또한 원화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.

다만,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 우려와 사회적 불안이 겹치며 강달러 흐름을 촉발했다는 점은 환율 하락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324.75 ~ 1337.25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947.32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.25원 ↑
	■ 美 다우지수 : 51966.03, -36.38p(-0.07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90.1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7630 억원